

## 중앙아시아 고려말 어휘의 체계화와 정밀화

곽충구  
서강대학교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и уточнение лексики Коре мар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втор:** Квак Чхунъ-Гу, Соган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ея

**Резюме:** Статья указывает на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в транскрипции Коре мар и в разъяснении смыслового значения лексики,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брана и исследован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вящено описанию Коре мар и призывает к продолжению его изуч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казывая на ошибки в транскрипции и в уточнении объема лексического запаса, предложено более точно и систем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ре мар. А это значит собра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и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уст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ммиграции, истории жизни, культуре, аккультурации и т.д.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лекс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ц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 мар»

### 1. 머리말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였던 고려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간 많은 학자들의 조사 연구 덕분에 지금은 고려말 어휘 자료가 꽤 축적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도 점점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립국어원(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이 2007년부터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아시아의 3국 5지점에서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를 조사하고 각각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또 구술발화의 일부를 한글 자모로 전사하고 주석을 달아 ‘국립국어원 해외 지역어 구술 발화 총서’로 간행하였다. 또한 권재일(2010)에는 고려말의 문법에 대한 연구 결과와 구술발화가 수록되었다. 이들 구술발화 자료를 통해서 고려말 어휘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어휘 자료를 살펴보면 전사와 뜻풀이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언어학을 전공한 이들이 조사한 것이든 비전문가가 조사한 것이든 어휘 조사 자료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고려말의 모태가 되는 함경도의 문화나 방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려말을 조사하고 기술해 왔기 때문이다. 또 고려말의 음운, 어휘, 문법의 전 체계를 고루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및 전사를 한 때문이기도 하다.

고려말은 조만간 소멸할 운명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 고려말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주 언어로서 모국어로부터 유리된 채 고립된 상태로 남겨졌던 고려말은 그 자체가 언어학의 소중한 연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말은 한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와 현재의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려말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고루 활용될 수 있으며 고전이나 고려말로 쓰인 문예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존재이다.

현재의 사전이나 방언 자료집에 올라 있는 방언 표제어에는 오류가 많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아무런 비판이 없이 전제한 탓인데 고려말 어휘 자료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말을 연구 및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기는 물론이거니와 음운, 어휘, 문법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기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조사된 고려말 어휘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려말 어휘를 좀 더 체계화하고 정밀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소략하게나마 말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어휘 자료의 체계화

#### 2.1.1. 어휘의 표기

조사 대상 언어에 대한 전사는 조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음성기호를 이용한 정밀전사가 바람직하다.<sup>1</sup> 이 전사된 자료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삼게 된다. 그런데 어휘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음성기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조사한 어휘 자료를 보인다가나 또는 어휘집이나 사전 따위에 그 자료를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원칙을 세워 한글 자모로 표기해야 한다.

한글 자모에 의한 표기는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적 표기가 있을 수 있다. 음소적 표기는 음성이나 음운 연구에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독자

<sup>1</sup> 지금까지 고려말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전사되었다. ① 키릴문자 또는 키릴 문자를 바탕으로 한 전사 문자. ② 국제음성기호(IP.A.) 또는 국제음성기호를 바탕으로 한 전사 문자. ③ 한글 자모를 이용한 전사. ④은 M. Пуцилло의 Опы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С. Петербург, 1874) 이후 제정 러시아에서 간행된 모든 한국어 관계 문헌에서 볼 수 있다. 특히 Казань에서 간행된 문헌은 매우 정교하게 한국어를 전사하였다(곽충구:1986, 1994, J.R.P. King:1987, 1989).

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형태와 그 의미를 포착해야 하므로 독서의 능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형태음소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음소적 표기를 가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빌어 와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형태음소 표기를 하려면 체언과 용언은 물론 여기에 결합되는 조사나 어미의 기저형(ОСНОВНОЙ ВИ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조사 대상 어휘의 음운 변동이나 활용, 곡용 따위를 낱낱이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이해해야만 형태음소적 표기가 가능하다. 허나 꽤러다임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형태 교체와 그와 관련된 음운 현상을 모두 파악하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고려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형태음소론적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된 자료를 한글 자모로 전사 또는 표기하는 데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른다. 어떤 어휘가 가진 음성, 의미, 문법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고려말의 체계 속에서 분석하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한글 자모로 표기할 때에는 미세한 음성을 놓칠 수 있다. 고려말의 경우, 특히 육진방언의 변종을 조사할 때는 음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 저, 조, 주’와 ‘쟈, 저, 죠, 쥬’의 전사나 음절말 위치의 ‘ㄹ’ 음([r], [l])의 전사 따위가 그런 예이다. 그리고 [β], [z]와 같은 음성은 한글 자모로 적을 수 없다. 또한 고려말 화자는 러시아 어식 조음 습관에 의하여 고려말을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글 자모로 전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글 자모 전사 곁에 음성기호 전사를 곁들이면 될 것이다.<sup>2</sup>

아래 예는 표기상의 오류를 보인 것으로 고려말을 조사 연구한 여러 논저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잘안 : 성인”

고려말의 ‘자란이’ 또는 ‘자라이’라 하는 명사를 [잘안]이라 표기한 것이다. 육진방언으로는 ‘자란이’ 일반적인 고려말에서는 ‘자라이’라 한다. 이 명사는 ‘어린이’와 조어법이 같다. 고려말에서는 ‘어린이’라는 말은 없고 ‘자란이’라는 말만이 쓰이는데 이 명사는 ‘자라-+ㄹ+이’의 형태소 구

<sup>2</sup> 전문가가 조사한 것이든 비전문가가 조사한 것이든 조사된 어휘 자료에는 전사가 잘못 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다. 특히 /ㄱ/, /ㄴ/, /ㄷ/[δ]/의 전사가 그렇다. 예컨대, 국립민속박물관(1999:169-184)의 ‘언어생활’ 편에 수록된 고려말 어휘에는 /ㄴ/를 모두 /ㄱ/로 전사해 놓았다. 예: 세월(필자 주: 새월이, =동생의 남편, 시누이의 남편 등), 제비(→제비, 자기 스스로), 마우제(→마우재, 러시아인), 깍제(→깍재, 쇠스랑), 땅가메(필자 주: 한뼉술), 차우제(필자 주: 차아제, 포크, 쇠스랑) 등

성으로 분석된다. 이 단어는 흔히 표준어 ‘어른’에 대응시키지만 ‘어른’과는 의미차가 있다. 위처럼 ‘성인’이라 풀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본형은 ‘자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란이’의 ‘-이’는 함경도 방언에서 흔히 명사 말에 결합되는 ‘-이’가 아니고 인칭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단독형의 표기에서는 꼭 적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란이’라 하더라도 이 명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나 조사가 결합되면 ‘자란-덜-이(성인들이)’처럼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라이’라 하는 화자라도 역시 ‘자란-덜-이(성인들이)’ 또는 ‘자라이-덜-이’라고 하지 ‘자라-덜-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간이 교체될 때에는 그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sup>3</sup>

“저꾸때 : 식해”

표기와 뜻풀이가 모두 잘못되었다. 표기는 ‘젓국대’라 해야 할 것이다. ‘젓(солёная рыба с пряностями)’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이다. 흔히 ‘젓국디’ 또는 ‘젓국지’라 이른다. 본디 함경도의 대표적인 음식의 하나인데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이 음식을 해 먹는다. 이 음식은 가자미 같은 바닷물고기 또는 붕어나 잉어를 저민 것에 소금을 쳐 물을 뺀 다음에 무를 썰어 넣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고수 씨의 가루를 함께 넣어 버무린 다음 단지에 넣어서 삭힌 음식이다. ‘식해(食醃)’는 가자미나 은어 따위에 밥을 넣고 삭힌 음식이다.

“붕각짜이 : 여자의 친척”

이는 ‘본가(本家)+짜(쪽)’을 전사한 것이다. 역시 표기와 뜻풀이가 잘못되었다. 고려말에서는 ‘친정’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본갓집’이라는 말이 쓰인다. 따라서 위 뜻풀이도 ‘친정-쪽(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트가다 : 거칠다”

이 말은 [트카구], [트캐서](또는 [트가구], [트개에서])로 활용이 이루어 지므로 당연히 ‘특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투박하고 거칠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고려말에서는 ‘-하다’가 결합될 때 유기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가 ‘트가다’로 전사한 것이다.

다음에는 문법 형태소의 표기를 보기로 한다.

<sup>3</sup> ‘자란이’처럼 ‘저구리’(저고리)도 ‘저굴-덜-이’, ‘저굴-썬-이’처럼 끝 모음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또 고려말에는 명사 뒤에 ‘-이’가 덧붙는 현상이 있다.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붙는 ‘-이’는 그 명사에 녹아 붙지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붙는 ‘-이’는 조사가 결합될 때 대체로 탈락한다.

- ① 해엿습구마 ~ 했습구마/하압구마 ~ 합구마<sup>4</sup>
- ② 해엿습꾸마 ~ 했습꾸마/하압꾸마 ~ 합꾸마
- ③ 해엿스꾸마 ~ 했스꾸마/하압꾸마 ~ 합꾸마

①은 문법 형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표기한 예다. 즉, ‘-습-’을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파악하고 그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습더구마’에서 ‘-구마’를 분석해 낼 수 있으므로 ‘-습구마’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③의 ‘스꾸마’는 음성전사한 것이다. 또는 ‘-스꾸마’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간주하고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습데 : -데’, ‘-습지(<-습디)’ : ‘-지(<-디)’, ‘-습더구마 : -더구마’가 각각 대우의 등급이 다르므로 ‘-습-’은 분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③처럼 발음이 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밝혀 주면 될 것이다. ②의 ‘-습꾸마’는 ‘-구마’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습-’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발화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한 것이다. ‘-습-’과 ‘-구마’를 통합이나 계열 관계를 고려하여 표기한다면 ‘-습구마’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예로 ‘-재이-’를 보기로 하자.

- ① 재이오, 재 ~ 이오(<대니오<디 아니하+-오)
- ② 쟁 ~ 이오

①의 ‘-재이-’는 표준어 ‘-쟝-’에 해당되는 형태이다. ‘하-재이오’, 하-재잉구[재이구], 하-재이리(하지 앓으리라), ‘하-재인니?’, ‘하-재잉더라’ .....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교체형을 고려하면 ‘-재잉-’로도 표기할 수 있다. ②는 ‘-쟁-’을 ‘-지 아니하-’가 줄어든 말로 보고 어원을 밝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육진방언이 아닌 보통의 고려말에서는 ‘-재이-’가 하나의 형태처럼 기능한다는 점, ‘ㄴ’이 ‘이’ 모음 앞에서 선행모음을 비모음화하고 탈락한다는 점, ‘ㅎ’이 역시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②와 같은 표기는 음성형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다. 거기다가 ‘ㄴ’을 표기하면서 비음을 나타내는 ‘~’까지 추가하는 일은 지나치게 어원을 의식한 표기라 할 것이다.

### 2.1.2. 기저형의 확인과 표기

<sup>4</sup> 만약 선어말어미 ‘-았-/엇-’이 고려말에서 ‘-앗-/엇-’이라면 ‘해엿습구마’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엿습구마’와 ‘했습구마’는 발화 환경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하압구마’와 ‘합구마’도 그렇다. 중앙어와 달리 ‘-읍꾸마’의 ‘으’는 선행하는 모음과 만나면 그것이 선행 모음과 동일하게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다. 그 때문에 ‘하압꾸마’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발화에서는 ‘합꾸마’로 실현되기도 한다.

고려말은 고어적이기 때문에 어간말 자음(군)은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예들이 많다. 예컨대, ‘꽃(цветок)’, ‘빚(долг)’, ‘낫(серп)’, ‘턴(мгновение)’, ‘ढ(первая годовщина)’ 따위가 그러한 예인데 이 같은 단어들을 전사할 때 표준어에 이끌려 무심코 ‘꽃’, ‘빳’, ‘낫’, ‘덧’, ‘돌’로 적는 일이 많다. 형태음소 표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교체형을 참고로 하여 기저형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 (1) 꽃이, 꽃으, 꽃을르, 꽃보다, 꽃처르 ..... 꽃부들기, 천지꽃  
 빚이, 빚으, 빚을르, 빚보다, 빚부터 ..... 빚재이  
 ढ이, ढ으, ढ보다, ढ부터 ..... ढ제사, 첫ढ이

또 이른바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일련의 명사와 용언의 경우 교체형을 확인하고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 예를 보자.

- (2) ㄱ. 낭기(냉기), 낭그, 낭글르, 낭게서, 나무두, 나무처리 .....  
 ㄴ. 낭기(냉기), 낭그, 낭글르, 낭게서, 낭기두, 낭기처리 .....  
 (3) 이르(читать, говорить)-고, 이르-지, 이르-니, 일거서, 일거두 .....

대체로 고려말에서는 (2)의 ‘나무’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보인다. (2ㄱ)은 고어에서 볼 수 있는 비자동적 교체의 예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낭’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무’로 교체된다. 그러나 (2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2ㄱ)과 같이 ‘낭’으로 교체되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주격형 ‘낭기’로 교체된다. 교체 이형태들이 단일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경우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표기는 (2)와 같이 적는 방법이 있고 어간과 조사를 밝혀 ‘낭이, 낭으, 낭에, 낭을르’ 처럼 적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현행 맞춤법에서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은 대체로 표음적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과 평행하게 (2)와 같이 적는 것이 좋을 듯하다.

(3)은 ‘-아/-어’ 앞에서는 ‘읽-’으로 기타 어미 앞에서는 ‘이르-’로 교체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표기된다.

- (4) ㄱ. 이르-구, 이르-더라, 이르-지, 읽어서, 읽어두 .....  
 ㄴ. 이르-구, 이르-더라, 이르-지, 일거서, 일거두 .....

이 예는 (4ㄴ)처럼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2)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현행 맞춤법에서 ‘빠르-’는 ‘빠르고, 빠르니, 빠르더라, 빨라서, 빨라도 .....’와 같이 표기하기 때문이다. 또 (4

ㄴ)처럼 ‘읽어서’로 표기하면 ‘이르다’의 기본형을 ‘읽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 2.1.3. 어휘의 체계

개별 어휘는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 요소들과 의미나 형태상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어휘를 조사할 때는 늘 어휘 체계를 염두에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친족명칭을 조사할 때 개별 친족명칭을 조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친족명칭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사할 일이다. 예컨대, 친족의 범위(부계, 모계, 처가, 시가), 호칭어와 지칭어, 서열(대수, 존속과 비속), 계열 상의 위계(동일 항렬에서의 연령), 성별(남, 녀), 직계(родственник по прямой линии)와 방계(родственник по боковой линии) 등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려말의 친족명칭은 러시아어의 영향도 있으므로 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 ‘모’ 호칭어는 러시아어를 쓴다거나 같은 항렬의 사람들은 역시 러시아 식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고려말의 친족명칭은 중부방언이나 남부방언과는 달리 부계(отцовская линия)와 모계(материнская линия)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곽충구:1993, Pak, N.S.:1996). 그리고 대부분 순수 고유어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한애비(<하나비>’, ‘아지미(<아즈미>’처럼 옛 친족어도 남아 있다.

고려말의 친족어에 대한 사전적 풀이를 보기로 한다. 조재수(1996:247)에는 ‘만아매’와 ‘만아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풀이해 놓았다.

- 만-아매 <명> ① (함북) →큰-어머니. ② (중앙아시아) →큰-고모.  
 만-아배 <명> ① (함북) →큰-아버지. ② (중앙아시아) →큰-삼촌.

위 ‘만아매’와 ‘만아배’의 뜻풀이는 모두 옳다고 하기 어렵다. ‘만아매’가 지시하는 의미는 함북과 중앙아시아가 같다. 그런데 위 풀이는 전혀 다른 것처럼 되어 있다. ‘만아매’와 ‘만아배’는 주로 함경북도의 남부 지역에서 쓰이는 친족명칭으로 그 지시 영역이 넓다. 그림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만아배(또는 만아바니, 만아바이, 몬아바니, 몬아바이)		
부 계	뜻 (표준어)	모 계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아버지 누님의 남편 (고모부)	
	어머니의 오라버니 (외삼촌)	
	어머니 언니의 남편 (이모부)	

따라서 ‘맡아매’, ‘맡아배’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야 한다.

맡-아매 <명> ① 아버지 형의 아내. ② 아버지의 누님. ③ 어머니의 언니. ④ 어머니 오빠의 아내.

맡-아배 <명> ① 아버지의 형. ② 아버지 누님의 남편. ③ 어머니의 오빠. ④ 어머니 언니의 남편.

이 같은 예를 조재수(1996:364)에서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아재 <명> ① (평안) →시동생. ② (함경) →고모. ③ (함경) →이 ④ (함북:육진) →작은-어머니. ⑤ (중아시아) →작은-고모. — <북> (말체) ① ‘어저씨’나 ‘아주버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

위 뜻풀이 ②로부터 ⑤ (중아시아=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뜻풀이가 모두 잘못 되었다. ②~⑤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해야 한다. “(함경, 중앙아시아) ① 아버지의 여동생. ② 어머니의 여동생. ③ 작은어머니.” 요컨대, ‘부’, ‘모’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어린 여자 동생을 지칭할 때 ‘아재’라 하는 것이다. 잘못 조사된 자료를 사전에 그대로 옮김으로써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방언 어휘의 정확한 주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일깨워 주는 예이다. 방언 조사는 현장 조사를 생명으로 한다. 일차 자료를 새롭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2.2. 어휘 의미 기술과 조사의 정밀화

### 2.2.1 어휘 의미

조사된 고려말 어휘에 대한 뜻풀이는 대체로 대응 표준어를 제시하거나 또는 관련 러시아어나 영어 단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논저에서 논거로 인용한 고려말 어휘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나 어휘 모음이나 구술발화 등에서는 보다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는 지금까지 간행된 방언어휘집이 그렇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술적 연구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지금까지 발표된 논저들에서 잘못 풀이된 몇 예를 가려 뽑은 것



들이다.

“점제 : 돛자리”

‘점제(камышовая циновка)’는 ‘돛자리’가 아니라 ‘삿자리’다. ‘점제’는 참나무나 귀룽나무의 오리, 갈대, 수수목, 옥수수대를 곁어서 만든 삿자리를 말한다. 이전에는 흔히 참나무나 구름나무(귀룽나무)의 가는 오리를 곁거나 갈대를 곁어서 방바닥에 깔았다. 귀룽나무로 만든 것은 질기고 오래가기는 하지만 나중에 색깔이 검게 변하여 보기가 좋지 않다. 수수목을 쪼개서 곁는 삿자리는 품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지만 제일 좋은 제품이다. 연해주에서 살던 시절은 물론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후에도 이 ‘점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의 하나였다.

‘점제’는 ‘덤자(簾子)’에서 비롯된 말로서 ‘덤직>점제’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육진방언권에서는 흔히 ‘덤제, 덤재’라 하고 비육진방언권에서는 ‘점제, 점재’라 한다. 이런 조사 항목은 재료, 형태, 용도, 제조 방법 따위를 꼼꼼하게 살펴 가며 조사할 필요가 있다.

“떡구시 : 떡찌는 술”

‘구시’는 ‘구유’의 방언이다. 따라서 ‘떡구시’는 말 그대로 떡을 찰 때 쓰는 구유이다. 필자가 본 것은 보통 구유보다는 작고 구유와 달리 양 옆이 터져 있다. 찰떡 따위를 할 때 술에서 꺼낸 지애밥을 이 ‘떡구시’에 넣고 떡메로 친다. 이 그릇은 함경도 지방에서만 볼 수 있다. 중부 지방에서 흔히 떡을 찰 때 쓰는 안반은 볼 수 없다.

“발귀 : 썰매”

‘발귀’는 함경도의 산간 오지에서 겨울에 소나 말에 메워서 땀나무 따위를 실어 나르는 바퀴가 없는 운반 기구를 말한다. 필자가 중국에서 본 것은 길이가 4.5m, 너비가 2.3m였다. 표준어에 대응시킨다면 ‘발구’에 대응시키면 될 것이었다. 발귀는 ‘썰매’에 대응시켜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썰매’와 크기, 모양, 용도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흔히 아이들이 타고 노는 ‘썰매’를 연상할 수 있으므로, 즉 의미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표준어 ‘발구’에 대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베교자 : 찐빵”

표기와 뜻풀이가 모두 잘못되었다. 본디 ‘보교재’라 하는 음식으로 중국어 ‘包餃子[bāojiǎozi]’에서 유래한 말이다. 움라우트를 꺾어 ‘베교재, 배교재’ 등으로 불리는데 ‘베교자’라 잘못 표기하였다. 또 이 음식은 만두

의 일종이지 결코 찌뽕은 아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거죽을 만들고 그 안에 돼지고기, 다진 양배추, 잘게 다진 파나 부추, 고추, 소량의 마늘과 생강 그리고 후추나 소금 따위로 속을 두어 빻은 다음 찌 낸 음식이다.

“벧조배기 : 벧단묵음”

추수한 뒤 곡식 단을 가릴 때 쓰는 말이다. 곡식에 따라 단수가 조금 다르다. 벼는 15단이 한 ‘조배기’이다. 30단은 ‘하지(<하디)’라 하고 50단은 ‘동’이라 한다. ‘벧조배기’는 15단의 벧단을 가린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신 : 머커리(짚신) 중에서 고운 것을 이르는 말”

‘머커리’는 ‘짚신’이 아니라 ‘미투리’이다. ‘사신’은 삼실과 밀을 먹인 창호지로 삼은 미투리의 한 종류이다. 이 미투리를 삼을 때, 색을 넣은 종이를 층에다 감아서 신의 앞 부분을 곱게 꾸미는데 이 신을 ‘사신’이라 하며 주로 혼사나 잔치 때 신었다. 흔히 비육진방언권에서 쓰였다.

“새애기 : 처녀”

‘처녀’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새애기’라 하고 또 갓 결혼한 새색시도 ‘새애기’라 한다. 여자아이를 귀엽게 이룰 때에는 ‘새아가’라 한다.

“설상이 : 쓰르라미”

‘설싸~이’(<설싸니)가 정확한 전사이다. ‘설싸~이’는 ‘설싸~이’, ‘설싸~이’, ‘설싸니’와 같은 변이형이 있다. ‘설싸~이’는 ‘귀뚜라미’의 한 종류이다. ‘쓰르라미’는 매미의 한 종류이므로 위 풀이는 옳지 않다.

“형겻 : 형겻”

‘형겻’과 형태가 비슷해서 흔히 ‘형겻’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옷감’, ‘천’을 이르는 말이다.

## 2.2.2. 조사 방법

고려말은 소멸 직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조사해 놓지 않으면 훗날 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M. Пуцилло의 *Опы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С. Петербургъ, 1874)에 실린 난해 어휘가 그런 예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 사용의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식(форма)과 의미를 ‘고려말 : 표준어’

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시키고자 한다면 그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용법이나 연어 구성 등을 놓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음운 상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어원상의 차이를 보이는 형식의 발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비록 표준어와 형식이 같다 하더라도 그 용법에서 얼마든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방언이 역사적 잔재(исторические остатк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 유형식(архаизм)을 찾는 일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조사 전에 치밀하게 조사 항목을 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조사 항목과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조사질문지』를 바탕으로 적절히 소재를 보태고 여기에 함경도 지방의 전통 문화 등을 보태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 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제보자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조사자는 그때그때 음성, 어휘 의미 등 제보자가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사 항목을 발굴하고 조사된 내용을 통일적으로 수습해야 한다. 결국 제보자의 유창성과 조사자의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및 질문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가 발견되고 그 어휘의 음운, 형태, 의미, 통사적인 문제들이 정밀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의문이 나거나 미진한 사항들은 확인조사나 보충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마치면 그날그날 현장에서 녹취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충 조사할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점제’에 대해서 조사한다면

음운 : 점제, 점제, 덩제 등 음운론적 변이  
 재료 : 구름나무(귀룽나무), 참나무, 갈대, 수수목  
 용도, 모양, 제조 방법(겉다/틀다/짜다/뺏다 ...)  
 관련 어휘 : 구름갈, 구름낭기, 구름꽃, 구름열매  
 유의어 : 노전, 살  
 대응 표준어 : 샷자리

질문의 범위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점제 및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점제’와 관련된 생활 문화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2.3.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의 확대

#### 2.3.1 한인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어휘

고려말 어휘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다변화하여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출산, 육아, 돌, 생일, 혼인, 환갑, 상사, 제례 등 통과의례와 음식, 복식, 가옥구조, 농경생활, 수렵, 연해주의 자연지세, 풍토, 기후, 교육 제도와 교과 내용, 세시풍속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나 이주사, 이주 과정,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 정착 이후의 생활, 이민족과의 관계, 문화접변, 문화 충돌 등을 소재로 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어휘 들을 선별하여 일정한 전사나 표기 원칙에 맞추어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 적절한 용례를 선별하여 그 용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용례가 없는 방언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문법 정보, 통합 환경(синтагматической среды)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고려말을 연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축적되면 향후 사전 편찬이나 각종 생활 양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지적인(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구전설화(устные рассказы)나 전설 따위를 조사하여 그 자료에 나타난 고려말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구비문학(устная литература традиции)으로서의 가치도 살리면서 생생한 고려말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전 설화 조사는 그동안 몇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이복규(2008)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가 그것이다. 아래 예를 보기로 하자.

“그래, 그 사람 딸가버리고(쫓아버리고), 야가 그 집 아들 글 배워주지. 그런데 그 집이서 아주 잘 사는 집인데, 가를 모질적만(모질게, 아주 잘) 잘 그래 주지냐? 자기 아들 글 잘 배워주니까 잘 맥이지 잘 입히지. 그렇게 호강시럽게 사지 그렇게.”

조사자는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낱말은 ( )를 두어 표준어로 대역하고 음운이나 문법 형태소는 표준어에 가깝게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드러진 방언 특징을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구술자의 언어가 그대로 전사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고려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관련 문헌 자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문헌에 기록된 서사어가 어떤 유형의 한국어이며 어떠한 언어 규범을 따랐으며 그러한 전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구어로서의 고려말 이외에 이러한 문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문화접변 현상을 보여 주는 어휘나 시대 사조를 반영하는 어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은 김필영(2004)의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와 같은 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 2.3.2. 언어 접촉과 관련된 어휘

고려말은 러시아 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를 자신들의 언어로 일일이 담아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연해주 시절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마련하고 새로운 고려말을 만들어 쓰거나 같고 다듣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sup>5</sup> 한국어 교육마저도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고려말은 이주 당시의 고려말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러시아 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러시아 어가 고려말에 미친 영향이 고려말 어휘에 어떻게 반사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체계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지 못하고 이미 쓰고 있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담아서 쓰다 보니 고려말 가운데에는 다의어가 많다. 그러한 예를 보기로 한다.

(5) 상 : 앉는 사~이(의자), 먹는 사~이(식탁), 쓰는 사~이(책상)

책 : 종이에 일정한 내용을 기록한 물건

고려인들은 ‘문서’, ‘증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쓰는 ‘진료 기록 카드’ 따위도 ‘책’이라 하며 당원증은 ‘당책’이라 한다. 이처럼 한 단어의 지시 범위가 넓은 것은 고려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둘째, 이주 초기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서구의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물의 명칭은 러시아 어를 직접 차용해서 쓰고 비슷한 사물이 있으면 자신들이 쓰는 말로 그 사물의 명칭을 삼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빵’을 뜻하는 ‘떡’이다. ‘떡’처럼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쓰이는 어휘로는 ‘결당’(또는 ‘결당’)이나 화폐 단위를 지칭하는 ‘냥’이 있다. 이들 어휘는 이미 연해주 시절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이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sup>6</sup> 지금도 여전히 거주국 화폐 단위 대

<sup>5</sup>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전 연해주에서는 각급 학교가 설립되고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또 규범적인 문법서인 오창환의 『고려문전』(하바롭스크, 1930)도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주 후에는 한국어 교육이 폐지되었다. 필자는 중앙아시아 한인들로부터, 연해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고려문전』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이주 전 연해주에서의 한국어문 표준화 운동에 대해서는 고영근(1997)을 참고할 것.

<sup>6</sup> M. Putsillo(1974)의 사전에 보인다. “Хлебъ печеный—тѣги …… 쪄기.” Matveev, “Kratkij Russko-Korejskij Slovarj,” *Spravochnaja Kniga g. Vladivostoka*(Vladivostok, 1900), p.20 에는 “1 дол.—иронь. 1 руб.—хан-няи. 1 коп.—хон-гырцэ. 10 коп.—яр-кырцэ (хандонь)”이라 하였는데, 달리는 ‘원’, 루블은 ‘냥’, 코페이카는 ‘글쨌’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중

신 ‘냥’이라는 말을 쓴다. 러시아 어를 차용하거나 새 말을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속성을 지닌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개념을 담아 의미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이처럼 고유어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마도 이주 초기, 러시아 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많이 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려말에는 러시아 어 차용어가 많다. 러시아가 극동에 진출한 19세기 후기부터 조선과 러시아는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졌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 인접한 함북 지방을 통하여 서구의 신문물에 대한 차용어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연해주를 왕래하거나 또는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어 차용어는 더욱 증가하여 어떤 것은 일찍부터 한국어 어휘 속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함경도 방언에는 러시아 어 차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 ‘거르만(호주머니)’, ‘비지깨(성냥)’, ‘마선(재봉틀)’, ‘삭개(모자)’, ‘골로시(고무신)’ 따위가 그것이다.<sup>7</sup>

넷째, 고려인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어휘들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예컨대, 임차농업의 하나인 ‘고본질’이나 또는 이민족을 지칭하는 말인 ‘부영눈’, ‘마우재’, ‘부예’, ‘부우택이’(러시아인), ‘사깨’(카자흐인), ‘베계’(우즈베크인)가 그런 예이다. 또 민족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혼혈인을 지칭하는 말도 생겨났다. ‘짜구배’는 한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 낳은 2세를 이르는 말이고 ‘올구배’는 그 혼혈인이 다시 한인과 결혼하여 낳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유형의 어휘도 폭넓게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려말을 쓰는 한인들은 이중언어자이거나 다중언어자이기 때문에 혼종어가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장의차는 ‘상뒤마시나’라 하는데 이는 상어를 뜻하는 함북방언 상뒤(<상뒤<향뒤)와 자동차를 뜻하는 러시아 어 ‘마쉬나(машина)’의 합성어이다. ‘빵을 굽는 화덕’을 ‘떡빼치카(-печка)’라 한다.

여섯째, 러시아 어의 영향으로 생긴 말이나 어법이 있다. 예컨대, 러시아 어 어를 번역 차용한 ‘골이 일으 하다’(←голова работает, 머리를 쓰다)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또 수를 표현하는 방식도 러시아 어의 영향이다. 가령, 23,000은 ‘스물세 천’이라 하고 233,000은 ‘양백서른세 천’이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유형의 고려말 어휘도 앞으로 폭넓게 조사해서 고려말의 특징과 성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아마도 현지 학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국의 노년층은 ‘냥’, ‘글째’라는 말을 더러 쓴다. Matveev의 위 자료에 대해서는 J.R.P. King(1988)을 참고할 것.

<sup>7</sup> 이러한 차용어는 일찍이 小倉進平(Ogura Shimpei)(1927)에서 소개된 바 있고 그 뒤 미승우(1987)에서 폭넓게 제시된 바 있다. 고송무(1987), J.R.P. King(1997)은 고려말 속에 정착한 차용어까지 아울러 보인 것이다.

### 3. 결론

이 글은 고려말 어휘 자료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고려말을 연구 자료로 삼거나 또는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이 무엇인지를 소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그 표기와 뜻풀이의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고려말 어휘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비문학, 문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사, 이주사, 문화사, 언어접촉 등으로 조사 대상과 영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참고문헌

1. 고송무(1980),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pp.193-212.
2. \_\_\_\_\_(Kho, SongMoo)(1987), “Korean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3. 고영근(1997), “1920년대 소련 한인사회의 한국어문 표준화운동”, <관악어문 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8.
4. 곽충구(1986), “<노한회화>와 함북 경흥방언”, <진단학보> 62, pp.79-125.
5. \_\_\_\_\_(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6. \_\_\_\_\_(1993), “함경도 방언의 친족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pp.209-239.
7. \_\_\_\_\_(1998), “동북·서북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pp.985-1028.
8. \_\_\_\_\_(2000),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pp.1123-1166.
9. \_\_\_\_\_(2004),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언어적 성격”, <관악어문 연구> 29(서울대 국문과), pp.127-168.
10. \_\_\_\_\_(2007),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자료와 연구”, <인문논총> 5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231-271.
11. \_\_\_\_\_(2009), “중앙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pp.57-92.
12. \_\_\_\_\_(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음운 변이”,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13. 국립민속박물관(1999),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4. 국립민속박물관(2000),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5. 권재일(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6.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17. 니라리사(2002), “까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18. 미승우(1987), “함경도 사투리 속의 러시아말들”, <어문연구> 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05-215.
19. 이기갑(2008), “중양아시아 고려말의 어휘”,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20. 이기갑, 김주원, 최동주, 연규동, 이현중(2000), “중양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pp.5-72.
21. 이복규(2008),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22. 전경수 편(2002),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3. 조재수(1996), <남북한말 비교 사전>, 토담.
24. 킹, 러쓰.연재훈(1992), “중양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pp.83-134.
25. 小倉進平(Ogura Shimpei)(1927), “함경남북도 방언”, <조선어> 2, 조선어연구회.
26. King, J.R.P.(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3.2, Seoul National Univ, pp.233-274.
27. \_\_\_\_\_(1988), “The Korean Dialect Materials in Matveev’s 1900 Reference Book to the City of Vladivostock”, *Language Research* 24, Seoul National Univ., pp. 281-329.
28. \_\_\_\_\_(1989), “A 1902 Cyrillic-script Rendition of ‘Little Red Riding Hood’ in North Hamkyeng Dialect”, in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WOKL.
29. \_\_\_\_\_(1991a),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Doctorial dissertation in Havard Univ.
30. \_\_\_\_\_(1996), “Russian Loanwords in Hamkyeng and Soviet Korean Dialects.”,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p.939-966.
31. Pak, N.S.(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32. \_\_\_\_\_(1995), “Tendentsii Razvitija Kore Mar”, *Xabarlary-izvestija, Natsionalnoj Akademii Nauk Respubliki Kazakhstan, Serija Obschestvennyx Nauk.* pp.21-29.
33. \_\_\_\_\_(1996), “Korean Kinship Terminology(Yukchin Dialect of Kore mar)”, *Izvestija Koreevedenija Kazakhstan, Vypusk 1, Almaty,* pp.87-99.
34. \_\_\_\_\_(2001), “Jazyk-Variant Jazyka-koiné-Dialect.” The Second Kazakhstan- Korean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and Central Asian Region N 2. Almaty.*
35. \_\_\_\_\_(2005), *Koreiskij Jazyka v Kazakhstane: Problemy i Perspektivy,* Almaty.
36. Пуцилло, М.(1874) *Опы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 С. Петербуркъ.